

## 제21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6(1953)년 8월 22일 오전 10시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의성립 :

1) 참석의원:16명

유정두, 이소규, 이복주, 명남철, 김삼성, 김남진, 이재홍, 진복춘, 임일남, 김경현, 김팔용, 정응표, 김길환, 김경희, 김자홍, 오세일 의원

2) 불참의원:5명

문택호, 박찬규, 김채용, 김영완, 이문길 의원

4. 의사일정 :

5. 보고사항 :

1) 제20회 의회 제3, 4차 회의록

2) 시영 흥행장 운영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3) 전문위원회(추가예산심의) 회의 상황의 건

6. 부의안건 :

1) 단기4286(1953)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및 식특회계 추가경정 예산심의의 건

7. 개의선언

유 정 두 의장

(오전 10시)

1) 개 회 식

8. 토의안건 :

◇서기 박 찬 대

- 제20회 제3, 4차회의 회의록 낭독

◇의장 유 정 두

-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음

◇김 남 진 의원

- 경과보고가 있었음.(속기록 참조)

※ 본 건에 대한 질의응답 약 20분간 계속. 질의 내용 생략 (속기록 참조)

◇임 일 남 의원

- 시공관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일임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교섭한 결과, 결정된 조건을 시인하는 동시에 그러한 조건(150만환 책임적으로 확보, 150만환 기채 매수 후 수지균형 등) 밑에서 수지를 맞출 수 있는가를 2주일간의 여유를 두어 숙고한 연후에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그 답변에 의하여 다음 의회에서 논의하자 동의하다.

- 재청이 있었다.

◇이 소 규 의원

- 시유재산을 처분하고 평화극장을 매수하자는 원칙문제를 논의한바 없으므로 가격을 시인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라 생각되며, 단지 흥행장같은 운영체를 갖는 것도 무방하다는 생각에서 전문위원회에서 조사케 하자는 당시의 결의였으므로 가격론은 빠르다고 보니 오늘 본 회의에서 시영주택을 처분함과 동시에 평화극장을 매수기로 결의하고 10일간의 기한을 두고 행정부에서 상세히 수지면을 검토하여 책임있는 답변에 의해서 다음 의회에서 논의하되, 만일 행정부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오늘 결의도 반복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매수하게 된다면 가격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동 위원에는 유정두 의장, 오세일 의원, 김남진 의원으로 선정할 것을 개의회하다.

- 재청이 있었음.

◇이 복 주 의원

- 시영 주택을 팔자는 데는 동의하나 평화극장을 산다고 하여 150만을 계산하였다가 백만 밖에 확보 안 되면 곤란한 문제이니, 우선 시영주택 처분할 것만 결의하고 극장 매수문제는 운영면과 기타 여러가지 면을 신중히 연구하여 행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한 후 차기 의회에서 논의하자 재개의  
※ 개의한 철회, 재개의는 재청이 없으므로 폐기되었음

◇의장 유 정 두

-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4면 중 가 8, 기 5, 부 1로 가결

◎ 단기4286(1953)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

◇의장 유 정 두

- 전문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결과를 설명(속기록 참조)

◇김 남 진 의원

- 본 예산안은 다각도로 심의했던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재청)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4명 중 가 12, 기 2로 가결

◎ 단기4286(1953)년도 목포시 식특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

◇의장 유 정 두

- 본 예산안을 심의해 주기 바람

※ 심의 약 20분간 계속하였음

(심의내용 : 주로 긴급 방출미대에 대하여 이복주 의원과 산업과장간에 질의응답이었음) (속기록 참조)

◇김 경 현 의원

- 본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에 이어 3청이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재석의원 15명 전원 가결

◎ 경찰운영상황 공개의 건

◇경찰서 경리주임

- 현하 당서 운영면에 있어 긴급히 요청되고, 미불되어 있는 채무확정액 및 서 수리공사비, 서장관사 수리비 등에 애로가 있다고 호소함과 동시 협조를 요청하는 당면한 경찰운영 상황을 설명한 바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본 건에 대하여는 비밀회의에서 논의하겠음

- 회의록 서명에 임일남, 김경현 의원을 지명

7. 폐회선언

◇의장 유 정 두

1) 폐 회 식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86(1953)년 8월 22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임 일 남

” : 김 경 현

작성자 서기 : 천 세 봉

## 제21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 ◇의장 유 정 두

- 20여일의 염천에 걸쳐 회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인데, 금반 집행부에서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기로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경찰서 경영에 관하여서도 말씀이 있을 모양이니까 이 점도 잘 생각하시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20회 의회 제3차, 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 ◇서기 박 찬 대

- 제20회 제3차, 4차 회의록을 낭독하였습니다.

### ◇의장 유 정 두

-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제20회 3차, 4차 회의록 전원 통과하였습니다,

### ◎ 시영 흥행장 운영위원회 경과보고

### ◇김 남 진 의원

- 본 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현재 시영주택을 매각한 대금으로서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는데 타협한 결과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있을 것입니다.

### ◇총무과장 조 운 응

- 이제 오후 5시 반에 주인을 만나서 가격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시에서 경영한다면 2억환정도에서 하겠다고 거의 타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공관 취득결과와 시유재산 처분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 소 규 의원

-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행정부 책임자의 의견과 가부를 말씀하여주십시오.

◇시장 하 동 현

- 시로서의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거액을 투자하여 수지균형이 맞을까 하는 점은 지금 총무과장이 구체적으로 조사 중이나 시유재산을 처분하여도 5천만원이란 돈은 기채하여야 할 것인데 이런 점을 상세히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공익지료까지 합하여 매각하면 150만환은 확보할 수 있지만 나머지 50만환은 기채를 하여야 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기채하며, 또한 시유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시유재산을 만든다는 것은 현재의 시영주택이 앞으로 10년간만 있으면 수리도 못하고 해서 부패되고 마나 차라리 이런 기회에 매각하여 이미 매도한다는 평화극장을 시공관으로 하여 보자는 것인데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전주 도공보관이나 대전시 공보관 등의 수입상황을 본다면 운영을 잘함으로써 적자는 없어서 시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 문제를 집행부에 일임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며, 시일이 가면 갈수록 피차의 입장이 곤란함에 어찌할 것인가 가부를 결정합니다.

◇이 복 주 의원

-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시에서 경영한다면 2억환에 주겠다 하는데 이 점은 실지로 애매한 것이며, 또한 영사기 1대에 대사여서도 1억, 2억, 몇억환까지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현재의 평화극장을 수리한다면 1억5천만 정도의 수리비가 필요하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의 체면도 있고 하니 정준 것을 변경하여 색다르게 하여야 할 것임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가격 문제에 대하여서도 2억이란 돈은 낙찰의 가격이 아니므로 앞으로 가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가격의 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특별위원회에서 타협한 결과의 문제는 2억 이상이면 살 수 없다는 것으로써, 주인측에서는 25를 달라하고 우리측에서는 15를 주겠다고 하였던 것인데 결국 우리 생각에는 25이고 15이면 이쪽 저쪽 절반씩 손해를 보면 2정도가 안될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김 삼 성 의원

-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첫째로 자금이 없으면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영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3자가 생각할 때에는 그 대금이 일시에 수입될 수가 있을 것인가? 또는 명도하는데 용이하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 유 정 두

- 불하를 하는데 6개월론도 있고, 3개월론도 있는데 이렇게 걸릴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로써 어떠한 수단으로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만 위해서는 사정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확고부동한 방침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임 일 남 의원

- 시영주택은 어디까지나 시의기본 재산이다. 이를 매각 처분하게 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 시영 주택이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부패된다는데 그렇다면 평화관은 앞으로 10년만 있다면 어찌될 것인가 하는 사정도 있을 것이며, 대전, 전주는 수지균형이 맞는데 광주에서는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임에 이런 문제의 조사와 더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의장 유 정 두

- 가격은 업자하고 결정되었으니 상세한 수지균형 조사는 집행부에 일임해서 조사되면 다음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 주 의원

- 가격이 1억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은 기채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 복 춘 의원

-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의원간에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10분간 휴회를 합시다.

◇김 삼 성 의원

- 신중히 검토한 방법의 조사 결과를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 운 용

- 현재의 시영주택이 대개가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식 건물의 수명은 대개가 30년이 넘으면 개축 또는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영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매각하는데 우선권을 준다 하여도 3, 4개월은 걸릴 모양이오니 행정부에서는 문화사업을 위하여 평화관을 사게 된다면 대소의 수리를 몰라도, 그대로 1년간 정도 계속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수리할 계획입니다.

◇임 일 남 의원

-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행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여서 다음 의회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바라며, 이를위해 앞으로 2주일간의 시일을 주어 다음 의회에 가결하기로 합시다.

- 재청에 이어 3청이 있었음.

◇이 소 규 의원

-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 조사하자는 것이 전문위원회의 근본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결정하였다 함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결의는 여러가지로 조사하여 같은 입장이며, 시유재산으로써 어떠한 운영체를 가져보자는 결의였는데 가격론은 빠르다고 본 바 오늘 의회에



서는 시영 주택을 처분하고 흥행장을 사기로 결의하고 오늘 본 의회에서 10 일간을 기한하여서 조사할 것을 개의회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지금 이소규 의원으로부터 후로 10일간의 기한을 주어 조사하자는 개의회 있었습니니다.

◇이 소 규 의원

- 매수의 가격검토의 조사위원으로서 오세일, 유정두, 김남진 의원 등을 가격조정위원으로 할 것을 첨가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사느냐 안사느냐 하는 논의는 되나 많다, 적다 등의 사정은 곤란하온 바 집행부에 일임하여 임의원 동의대로 하는것이 어떠합니까?

※ 이소규 의원의 개의회안은 철회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복 주 의원

- 시영주택을 파는 것은 좋으나 1억5천만환을 계획하였다가 1억밖에 나오지 않으면 어찌할 것인가?

또, 극장의 가격을 결정한 것은 책임져야 하며, 극장 문제는 다음 의회에 논의할 것을 재개의회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집행부에서 1억5천만환을 책임지고 부족액도 책임지기로 하여 실태 조사를 하여서 다음 의회에 보고하기로 합시다.

◇정 응 표 의원

- 특별분과 위원회의 목적 이탈리아(이하 자료 무)